

■지방교회 (회복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방교회에 대한 비난은 오해에서 온 것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지방교회 운영 원칙

한국교회는 위치만 니의 지방(회복)교회로 알려져 있는 로칼처치(local church)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로 위치만 니의 신학사상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한국교회 외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지방교회측은 한국교회에 왜곡 전달된 자신들의 신앙과 실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1. 오해 받고 있는 내용들

첫째, 지방교회가 삼위일체 신관에 대해 양태론을 믿는다는데 대해; 지방교회 성도들은 삼위일체 신관의 양태론을 이단사상으로 오히려 정죄한다고 밝혔다. 지방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고 상호내재(相互內在) 하시며, 영원히 동시존재하신다는 칼케톤 신조를 굳게 믿는다.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삼위의 동시 존재를 믿는 양태론'은 성립될 수 없음을 잘 안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사야 9장6절에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고린도후서 3장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처럼 본문자체가 존재론적 위격 간의 동일시를 말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본문들에서의 삼위 간의 동일시는 '존재'가 아닌 경륜적인 '기능상'의 동일시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함께 이같은 '경륜적 삼위일체' 방안을 가르친 것을 일부 인사들이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교회가 기성교회를 바벨론, 음녀라고 한다는데 대해; 이 말은 위트니스 리가 다른 근본주의 교사들의 동일한 해석에 동승하여 요한계시록 17장5절의 '큰 바벨론, 음녀'를 로마 천주교로 본 것을 일부 이단감별사들이 악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회는 기성 교회 안의 거듭난 성도들을 형제로 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다.

셋째, 목사제도를 부인한다는데 대해; 지방교회도 개교회의 인도자로서 복수의 '장로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세속 직업을 가진 경우도 있고, 기성 교회처럼 전 시간으로 교회만을 섬기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기성 교회의 목회자 역할을 감당한다. 다만 지방교회는 이들을 '목사'라고 호칭하지 않고 '장로'라고 부를 뿐이다. 칼빈도 두 종류의 장로론을 가르쳤고, 장로교 헌법에도 '목사'를 '장로' 반열에 두고 있다. 또한 초대교회는 주후 4세기 경까지 목회자를 '장로'로 호칭했다.

넷째, 지방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는 데 대해; 구원은 각 개인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고 믿는다. 우주적 그리스도의 교회는 참되게 거듭난 교인들의 공동체이고, 또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믿는다.

다섯째, 지방교회만 교회라고 한다는 데 대해; 참되게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우주교회'(마16:18)의



◇위치만 니의 대표적 저서 '영에 속한 사람' 한국어판.

'목사' 대신 '장로' 사역자가 교회 관리 운영 거듭난 성도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교회 일원

일원임과 동시에 그가 거주하는 지역을 범위로 하는 해당 '지방교회'(local church)의 일원이다(행8:1, 계1:11). 예를들어 지방교회가 '서울교회'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지방교회가 지향하는 것

지방교회 성도들은 성경 그대로 믿고 가르치며, 특히 성경의 중심 진리를 강조하고 실행하기를 힘쓴다. 지방교회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요11:25, 골3:4)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엡1:23) 건축하는 것(엡4:16, 마16:18)이 성경의 중심 진리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이 최종 완성된 모습이 어린양의 신부인 새예루살렘이라고 한다(고후11:2, 계21:2, 9-10). 위치만 니와 위

트니스 리의 수백 권의 저술들은 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심내용으로 쓰여졌다.

지방교회는 또한 최대한 성경대로 실행한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다. 그래서 침례(행8:36-39)를 선호하고, 또 매주 예배시간에 성만찬을 실행하고 있다(행20:7).

3. 지방교회의 특징

지방교회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에 관한 객관적인 가르침에 더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의 그분의 몸'(엡1:23)을 건축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방교회는 그러한 객관적 진리를 토대로 삼되 더 전진해서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골1:27)와 그분에 대한 체험을 강조한다. 이

것은 골로새서 1:27-29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본을 따른 것이다.

루터는 천주교의 성직자 제도의 폐해를 보고 만인제사장을 주창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론에 비해 실행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방교회는 에베소서 4장12절의 권면을 따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길 힘쓰므로 만인제사장 제도를 실제로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롬15:16), 모든 성도들이 말씀 증거하도록 격려해 왔다(고전14:1, 4, 23-26, 31).

지방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며(엡4:4) 주님은 분열을 책망하신다고 믿는다(고전1:10-13). 따라서 가급적이면 분열의 요인들은

피하고 겸손, 은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등 몸의 하나를 이루는데 필요한 미덕들을 더 소유하기를 힘쓴다(엡4:2-3참조).

4. 지방교회의 신앙

위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로 대표되는 지방교회의 신앙은 한국복음서원이 발행한 신약의 결론(총8권)에 잘 정리되어 있다.

지방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교회, 구속과 구원 등 핵심 신앙에 있어서 성경뿐 아니라, 성경에 따라 결의된 고대 예규메니칼 공의회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지방교회는 초대교부들의 정통 가르침과 교회 역사상 주께 쓰임 받았던 주의 종들을 통해 밝혀진 진리들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복음서원도 '2천년 교회사 순례'(214쪽)라는 책을 번역 발간한 바 있다.

따라서 주의 회복은 성경과 교부들과 역대의 주의 종들을 통해 계시된 건전한 가르침들을 이어 받은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